

하나됨과 나눔

##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대강절(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방을 준비하십시오.
- 오늘 연합공동체별로 3/4분기 정기 실행위원회 모입니다.
-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공동체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모입니다.
- 멧쟁이학교 종강여행이 6일(화)부터 9일(금)까지 속초와 학교에 있습니다.

###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용신 장로 · 진정행 권사 가정 ( 감사 )  
나송주 집사 · 이윤희 권사 가정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정해분 권사(조향민 · 최신혜 집사 생일 기념)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연합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지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49 호

2022년 12월 4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은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히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근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히어로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거미와 같이 어딘든 올라가고 거미줄을 쏘기도 합니다. 남부럽지 않을 재력으로 갑옷을 개발해 하늘을 날아 다니며 멋진 폭죽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광물에 영향을 받아 놀라운 힘과 능력을 얻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이 가장 탐나시나요?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영력? 단단한 몸? 엄청난 힘?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재력? 혹은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유명세가 좋을까요? 이런 영화들의 공통점은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이 갑자기 등장한 악한 힘에 맞서 싸우며 지구를 지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영화도 있습니다.

2012년에 '크로니클'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호기심에 봤다가 큰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은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우연한 기회에 초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히어로 영화와는 다른 진행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가진 초능력을 자신의 충동에 따라 사용하기도 하고 화풀이로 능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무리 중 한명이 스스로의 능력을 통제하지 못해 광기를 부리고 그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영화의 원조는 '아키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들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초능력이 생긴다 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처음 생겨났을 때 우리는 그곳에 이상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생산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며 함께 쉬는 천국과 같은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마 샤르트르가 소련에 실제 모습을 온전히 경험하였다면 이불속에서 발자기를 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공산주의 체제는 멋집니다.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세계를 가장 가깝게 구현했다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 선교와 섬김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절대 초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나약함을 벗어버리고 넘어선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동조해 나약한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려 노력했고 진리나 정의와 같은 개념들은 오래된 것이며 새롭고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나치당은 아리아인을 이런 초인이라 말하며 타민족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아 이상향을 만들려 노력했던 소련의 통치자들 또한 이런 초인이 되려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현실세계에 필요한 것은 망치가 아니라 용납과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더 뛰어난 가치와 능력을 통해 만들어내는 가치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정의와 공의가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몇의 뛰어난 초인이나 사상이 이끄는 세상은 그리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길 원하는 여러 운동들은 사회를 변혁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교회력으로는 한해를 시작하는 기간이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열심이신가요?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인 - 원어는 위버멘쉬(Übermensch)입니다.  
한국어로 표현될 때 초인, 철인, 극복인, 위버멘쉬 등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초인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권재만 목사

## 한주간의 말씀

“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383장 397장 342장

기도 : 이어람 집사

성경 : 사무엘상 11장

제목 : 야베스 사람에게 임한 구원

1. 내용: 위험에 처한 야베스 사람들을 사울이 구하다. (What)

<문단구분>

1절~4절 야베스 사람들이 곤경에 빠지다

5절~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암몬을 무찌르다

12절~15절 사울을 길갈에서 왕으로 다시 세우다

2. 의미: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Why)

1)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할 때 극도로 분노하였다.

2) 사울은 즉각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였다.

3) 기브아 사람들이 구출하겠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4) 사울은 왕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3. 적용: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두 회복시키신다. (How)

1)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에 가만히 있지말자.

2)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 과감하게 행동하자.

3) 화해의 말을 먼저 건내자.

4) 믿음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자.

## 성서일기

## 대한민국 짹짹 짹짹~

한국 축구가 강호 포르투갈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뤘습니다. 새벽에 대진대 학생들과 목이 쉬도록 응원을 하였는데, 16강 진출이 확정되던 순간 모두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설렘을 감출 수 없습니다.

확률 9%의 가능성을 통과해 16강 진출을 이뤄낸 우리 대표팀. 선수를 일대일로 보면 분명 우리보다 상대였던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이 강합니다. 그러나 팀으로 우리 선수들이 이겼습니다. 경기 후일담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경기 전 이날의 히어로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 선수에게 언급했던 대화가 감동적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대표팀을 믿어준 국민들에게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상대가 나에게 집중될 것이니 너에게 공이 날 것이다. 단단히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투혼과 컨디션 난조로 유난히 모든 경기가 어려웠던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이날도 8번이나 상대 수비에 막혀버렸습니다. 9번째 코너킥 상황에서 부상 여파로 PK 박스 안에서 경합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나와 있었는데, 상대의 코너킥 공이 자신 앞으로 흘러오자 그 불을 갖고 냅다 전력 질주하였습니다. 앞뒤로 6명의 상대 선수가 둘러싸고 덤벼자, 상대 가랑이 사이로 패스를 하여 황희찬 선수의 역전골을 만들었습니다.

팀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팀은 이번 월드컵에서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우루과이, 가나와도 잘 싸웠습니다. 4년 동안 원 팀으로 준비한 우리 선수들이 어떤 팀에도 지지 않을 정도로 팀워크가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팀워크를 이루는 하나님이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의 하나님이지요. 사랑방공동체가 종로 시절 연합체육대회에서 꼴찌를 하자 충격에 목사님께서 자비로 탁구대를 구입하신 후 하신 첫 말씀이 팀워크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공동체는 개인기보다는 팀워크가 빛날 때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9%의 가능성보다도 낮은 도전의 여정이 되었지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팀워크로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공동체 김병우 집사

## 지체들의 삶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석용범 박영선 / 봉헌위원 : 김병우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은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 공동기도문

저희를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비춰주셔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십시오.  
성탄을 준비하는 모두가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사도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라는 은유적 표현을 써서, 예수님께서 창조에 참여하셨고, 이 세계의 시작 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고스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 어두움의 속성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무언가를 행한다면 스스로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놓여있는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어둠에 속하여 있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죄악을 깨달을 수도 없고,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감추고 싶었던 것들,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빛은 각자의 어두움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어두움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바로 보려면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믿게 될 때 구원의 길이 보이고, 진리의 지식을 가지게 되며, 소망이 더욱 단단해 질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양기모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잘 지키자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11월을 보내며 월요일에는 마당에 숨어있는 쓰레기들을 찾아 주워서 버렸습니다. 일할 때 쓰는 알록달록한 장갑을 끼고 손으로 쓰레기를 주워 모았습니다.

첫 한파에 몸을 적응시키느라 주로 안에서 놀았습니다. 요즘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숨바꼭질, 열음뎡 같은 약속이 있고 술래가 있는 놀이를 합니다. 술래를 정하는 방법은 종종 바뀝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술래가 될 때도 있고 이긴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며 그때 그때 약속을 확인합니다. 놀이에서 진 사람이 술래가 될 때도 있지만 그냥 순서를 정해 돌아가며 술래를 하기도 합니다. 술래가 된 친구가 하기 싫어하면 다른 친구가 대신 해주기도 하고 술래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에게 자기 차례를 양보하기도 합니다. 누가 술래에게 걸렸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종종 말다툼이 일어도 하고 토라지는 친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봄부터, 이런 문제들로 몇 판 못하고 속상해하며 끝나는 이런 놀이들을 계속 시도하고 또 하더니 이제는 어지간한 상황은 서로 이야기로 풀어가며 잘 늙니다. 참 열심히 놀면서, 약속 정하고 지키는 것을 배우고 약속을 넘어 친구를 배려하며 함께 즐기는 법을 익혀갑니다.

꾸러기들이 한꺼번에 코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심히 놀 때는 잘 모르다가 책을 읽거나 하느라 모여 앉으면 아예 옆에 휴지와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는 게 편한 정도로 코를 풀고 닦느라 바쁩니다.

< 교사 : 정승희 >

### 어린이학교

손도 쫘! 발도 쫘쫘!!

마지막 가을비가 제법 내린 후에 기온이 혹 떨어졌습니다. 가을이었다가 자고 일어나니 하루만에 겨울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어린이들은 마당에 고여있는 웅덩이의 물이 녹지 않고 얼어있는 것이 너무

## 배움과 가르침

신납니다. 나뭇가지로 두드려 깨고, 신발을 신고 살짝 미끄럼도 탑니다. 선생님들은 등, 학교 차량 안전 때문에 방학하기 전에 눈이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어린이들은 빨리 눈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만 볼 수 있는 어린이들의 순수함이 부럽습니다. ^^;

어린이학교의 학과 수업은 이제 이번주로 마무리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과별로 보충수업을 원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어린이들과 막바지 정리 및 한 학기 교과 피드백을 가지는 시간도 있을 것 입니다. 또 다음주에 있을 학년말발표회도 준비하면서 보내야하는 시간이라서 이번주는 다른 때보다 무척 바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추운 날씨 속에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되기를.. 더불어 한 학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교사 : 정다운 >

### 멋쟁이학교

지난주 멋쟁이학교에서는 학기말 학생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한 학기 생활 속에서 본 모습들을 피드백해 주시고, 많은 조언들도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멋쟁이들은 선생님들이 해주신 면담 내용들을 각자의 삶 속에 잘 적용시키며 한 걸음 더 성숙해지고,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면담을 하는 동안 멋쟁이들은 종강 발표회 준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MJE Inside out'이라는 주제로 종강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사랑에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주인공의 머릿속에 있는 감정들이 알아가는 내용을 연극으로 발표하며 재미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모든 멋쟁이들, 그리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종강 발표회로 인해 토요일 저녁에 귀가를 했기 때문에, 멋쟁이들은 이번 주 월요일 저녁에 등교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속초로 종강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종강 여행을 통해서 한 학기를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 교사 : 박예나 >

## 올 김장

겨울은 어김없이 돌아오는데 한해의 할 일은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십이월에 주보에 글쓰는 날은 어김없이 돌아와서 글을 쓰려 하는데 쓸 말이 별로 없어서 무엇을 쓸까하고 망설이다가 이글을 쓰려고 한다.

올해는 정말로 힘든 한해다.

그래도 올해는 배추를 모종으로 심겠다고 칠일말에 모종을 부어서 열심히 가꾸기 시작했다. 모종이 어느 정도 자라서 다른 해 보다 빠르게 밭에 옮겨 심고 물도 열심히 주고 키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모종은 잘 자라는데 별레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정말 무슨 방법을 써도 죽지도 않고 매일매일 더 자라기만 하니 매일 잡아도 보고 민간요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또 해봐도 없애지를 못해서 거의 포기할 하려고 주방식구들에게 배추를 사서 김장을 하자고 했다.

홍정길 장로님 알 배추는 사지 말고 되는 대로 가능하면 우리가 키운 것으로 김장을 담궈서 그냥 먹자고 하셔서 정말로 감사했다. 무림리에 와서 처음으로 배추 때문에 걱정을 해보았다.

시간이 지나서 김장할 때가 됐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김장할 때는 옆에 도 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면서 지냈다.

생각해보면 올해처럼 지내운 적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한해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은 때가 있거나 생각해 보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울적해진다.

그래도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자려고 한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열심히 지련다.

생활공동체 그루터기사랑방 나눔주 집사

함께사는 이야기

##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권재만 목사  
찬 송 : 428장, 524장  
성 경 : 이사야 49장 1~7절  
말 씬 : 빛으로 오신 예수님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중국인들의 몸과 마음의 자유를 위해)
  - 1) 중국의 백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차단하려 합니다. 시진핑의 3연임으로 혼란한 가운데 코로나-19의 여파도 심각해 많은 중국인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불가능한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함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몸과 마음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2) 중국에 있는 공동체 지도자와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개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민들레 공동체를 위해)
    - 1) 민들레학교 교사 초빙, 학생 모집 및 민들레대학 운영을 위해.
    - 2)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동체 공간디자인 및 작업을 위해.
    - 3) 선교사, 목회자 지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공동체에 코로나, 독감, 목감기 환자들이 증가 - 건강을 위해 특별히 김영동, 전경희 집사님 부부를 위해
    - 2) 공동체 학교들의 의미 있는 마무리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기운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 마당에 하얗게 내린 첫눈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추운 겨울을 어찌 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매일 밤 공동체 주방에 물을 틀어야 하고 각처에 있는 기구들이 열지 않을까 살펴야 합니다. 난방기가 잘 꺼져 있는지 확인도 하고 마당이 눈으로 질퍽이지 않도록 눈을 쓸어 길을 내야 합니다.

공동체 식구들의 손이 더 많이 필요한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아무 탈 없이 이번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 장영미 전도사 >